

광주·전남 체육회 새해 청사진

광주 U대회 주역 집중 육성 전남 실업팀 창단 적극 유도

시체육회 박재현 사무처장



“큰 귀와 튼튼한 뒷다리를 가진 토끼처럼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광주 체육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끌겠다.”
광주시체육회 박재현(53) 사무처장은 4일 “지난해 광주FC 창단, 야구장 건설 확정,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준비 순환 등 체육계 기념비적인 일들이 많았다”며 “체육계 발전 분위기 속에서 체육회와 광주 체육인들이 하나가 되어 올해를 힘찬 도약의 한해로 만들겠다”고 2011년 청사진을 밝혔다.
박 처장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의 연계육성을 통한 광주출신 우수선수들의 타시도 유출 방지 ▲지역선수들이 애 향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광주와 경쟁 도시 경기력 및 육성가능 종목 분석을 통한 순위 및 성적향상 등 올해 업무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박 처장은 “목표 실현을 위해 대표선수들이 최고의 훈련장에서 경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체육시설물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또 체육회 직원들의 업무능력 개발 및 서비스 품질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도체육회 서정복 사무처장



“올해 팀 창단에 역점을 뒀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우수 성적을 거양하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전남도체육회 서정복(62)사무처장은 4일 “지난해에만 10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전남체육회관 신축 토대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은 선도적이고 진취적인 체육회로 거듭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며 “올해부터는 체육회의 최대 중점 과제인 경기력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2011년의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도내 기업체 및 시·군의 실업팀 창단을 통해 원활한 선수 육성 체계를 마련, 전국체전등에서 전남의 이미지를 높여겠다는 각오다.
체육 선진화 기반 구축 및 체육 진흥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체육인재 육성 기반 조성 등 8가지 과제도 선정했다.
서 처장은 “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이 절대적이다”며 “사무처 직원 모두 한마음 한 뜻의 마음가짐으로 전남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죽음의 레이스 니세르 알 아티아키타르가 4일 자신의 폭스바겐을 몰고 아르헨티나 고르도바에서 투쿠만까지 324km이르는 다카르 랠리 제2구간을 달리고 있다. 죽음의 레이스로 불리는 다카르 랠리는 바이크, 4륜바이크, 자동차, 트럭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다.

삼성생명·대한항공 정상

탁구 종합선수권 男女단체전

남자 실업탁구의 강호 삼성생명이 제64회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2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고 여자부에서는 대한항공이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삼성생명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주세혁이 단식한 게임을 내줬지만 유승민(29)과 서현덕(20), 정상은(21)의 활약으로 이정우(27)를 앞세운 농심삼다수를 3-1로 눌렀다.
지난해 대회에서 KT&G(현 인삼공사)에 이어 준우승하는 바람에 5연패가 좌절됐던 삼성생명은 2년 만에 최강 자리를 되찾았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 단식 챔피언에 오른 정상은은 단체전 우승으로 2관왕의 기쁨을 맛봤고 복식에서 우승한 유승민-서현덕도 나란히 2관왕이 됐다
여자부 단체전 결승에서는 대한항공이 에이스 석하정(25)의 맹활약으로 문현정(27)이 분전한 삼성생명을 3-0으로 완파하고 4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여자 개인 단식을 2연패한 석하정은 단체전 우승으로 '2관왕 2연패'를 달성했다.

/연합뉴스

박태환, 볼 코치와 재계약

“2012 런던올림픽까지 함께”

수영스타 박태환(22·단국대)이 마이클 볼(호주) 코치와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계속 호흡을 맞춘다.
박태환의 후원사인 SK텔레콤스포츠단은 4일 “볼 코치와 재계약을 끝냈다. 계약기간은 런던올림픽까지”라고 밝혔다.
SK텔레콤스포츠단은 구체적인 조건은 밝히지 않은 채 연봉 및 성과보수는 지난해보다 상당 조정된 금액으로 다시 계약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부터 광주우 아시안게임 때까지 박태환을 지도한 볼 코치는 연봉 10만 달러와 성적에 따른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은 “볼 코치와 계속 훈련하게 돼 기쁘다. 얼마 남지 않은 세계선수권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세계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겠다”며 볼 코치와 재계약을 밝혔다.

/연합뉴스

김경태·노승열 “우리는 쏘대표”

일 간판 이사카와 등 의기투합 유럽강호와 로열트로피서 대결

일본프로골프투어 삼금왕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와 아시아투어 삼금왕 노승열(20·타이틀리스트)이 아시아의 자존심을 걸고 유럽의 강호들과 샷 대결을 펼친다. 김경태와 노승열은 오는 7일부터 사흘간 태국 후아힌의 블랙마운틴 골프장에서 열리는 2011 로열트로피에 출전한다.
로열트로피는 아시아와 유럽의 골프 대항전으로 지난 2006년 처음 시작됐다. 아시아와 유럽을 대표하는 8명의 선수가 팀을 이뤄 포섬 4경기, 포볼 4경기, 싱글 매치 8경기 등 총 16경기를 치르는데 각 경기에서 승리하면 1점을 얻고 비기면 0.5점을 따낸다. 2006년과 2007년, 2010년에는 유럽이 이긴 가운데 아시아는 2009년에 위창수(38·테일러메이드)와 허석호(38·쓰루야)가 활약을 펼쳐 처음 승리했다. 2008년



〈김경태〉 〈노승열〉

에는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올해 로열트로피에 출전하는 아시아팀은 김경태와 노승열을 비롯해 일본의 골프 간판 이사카와 료와 이케다 이케다 유타, 소노다 슌스케(이상 일본), 랑원중(중국), 통차이 자이디(태국), 지브 밀카 싱

(인도)으로 구성됐다.
이에 맞서는 유럽은 단장 겸 선수인 콜리 몽고메리(스코틀랜드)를 필두로 에도아르도 몰리나리, 마테오 마나세로(이상 이탈리아), 요한 에드프르스, 페테르 한슨, 헨릭 스텐손(이상 스웨덴), 토마스 비요른(덴마크), 라이스 데이비스(웨일스) 등이 나선다.
팬들의 관심은 지난해 일본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김경태와 이사카와 료가 라이벌 관계에서 잠시 벗어나 아시아를 대표하는 동료로 의기투합해 2년 연속 유럽의 컵대를 쥐어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최연소 아시아투어 삼금왕을 차지한 노승열도 최근 라시 수술을 받고 나서 정상 시력을 되찾은 만큼 좋은 활약을 기대된다.

/연합뉴스

무등산CC 사장에 정상균씨 취임

무등산CC 사장에 정상균(56·사진)씨가 취임했다.
함평 출신인 정 사장은 광주대학교를 졸업했고 37년간 건설업에 몸담아 왔으며, 나래건설(주)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골프경력 20년의 정 사장은 고객으로서 느껴왔던 부진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사장은 “지역 내 타 골프장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골프장을 만드는 길



밖에 없다”며 “직원 및 경기 도우미들의 고 객 응대 및 예절 교육실시, 정확한 경기진행 및 최상의 잔디 관 리유지 그리고 각종 이벤트 및 행사들을 열어 지역 내에서 가장 예 건이 좋은,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선대 선수단 동계훈련 돌입

조선대학교 체육실 선수단이 동계강화훈련으로 명예 회복을 노린다.
조선대가 오는 28일까지 교내 체육관 및 운동장에서 10개 종목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동계강화훈련을 갖는다.
육상·태권도·핸드볼·축구·레슬링·역도·검도·하키·농구·배구 등 육종종목 10개팀이 참가하는 동계합동 훈련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전국체전의 부진을 씻기 위해 합동훈련을 계획했다.
체육대학 윤오남 실장은 “제92회 전국체육대회 필승 결의를 다지고 정신력을 강화하는 등 광주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4주간 동계강화훈련을 갖는다”고 밝혔다.
조선대 선수단은 25~28일에는 병영체험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

OPEN 기념!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한식 20가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층별시설안내

- 5F 벨라지오희(웨딩홀) 카네기홀(연회장)
- 4F 객실, 신부대기실
- 3F 객실
- 2F 객실, 워트니스센터
- 1F 프론트, 커피숍,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연회상담실
- B1F 대연회장, 펌백실

웨딩홀

객실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전 객실 인터넷 사용**

객실예약 | (062) 600-9999 | 예식연회예약 | (062) 362-0011,002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61번지(상무지구 콜센터 옆) | www.hotelarthall.co.kr

LG전자 시스템 에어컨(주) 특판부

난방비 절감, 등유대비 70%이상 놀라운 절약률!!

LG 히센시스템이 설치 및 애프터 서비스
유지관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장점

- 절전형 고효율 인버터 콤프레서
- 친환경 냉매
- 하이드로 키트체택

비닥 난방, 급탕이 필요한 병원, 기숙사, 리조트 등 다양한 건물에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 설치장소

- 공장시설
- 사무시설
- 교육시설
- 숙박시설
- 의료시설
- 판매시설

LG전자 시스템 에어컨(주) 특판부 **진영설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528-10번지
TEL. 062-953-2371 · 061-727-2371 · 019-624-2371